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회원사 경영안정 기술개발 집중 지원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제고한다

올해로 창립 32주년

말이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이라면 글은 이를 기록하는 부호이며, 종이는 서사재료로서 이 기록을 담아서 널리 표현, 전달하고 후세에까지 보존, 전수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매체라고 하겠다.

오늘날 종이라고 하면 곧 기록, 즉 서책과 인쇄를 연상케 되는 것이 이 때문일 것이다.

종이란 일반적으로 섬유질 물질 개개의 섬유를 기계적 작용으로 분리시킨 다음 이를 물속에 담그고 다시 모아 조직을 만든 후 이를 건조시켜 만드는 섬유물질의 얇은 조직이라고 정의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의 종류는 대단히 많으나 통상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크게 문화용지, 산업용지 및 기타용지로 나누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종이를 보면 문화용지로 신문용지, 교과서용

지 및 인쇄용지로 구분된다.

산업용지는 각종 포장지, 상자, 표지 등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하며, 크라프트지, 판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타지로서는 위생지(화장지) 및 식품용지(식품포장지), 정보산업용지(컴퓨터용지 등) 그밖에 절연지, 켈연지, 지폐용지, 벽지, 특수지 등이 있다.

제지기술이 우리 나라에 언제 들어오게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고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낙양에서 발명된 제지기술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데는 그다지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제지기술을 중국에서 이어받았으나 그 원료나 초지법을 독창적으로 개발, 개량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만들어 냈다.

이같이 제지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업계를 이끌어오고 있는 한국제

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희윤)이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았다.

제지조합은 1962년 3월28일 발기인 12명의 뜻을 모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안건을 채택, 결의했다.

그후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29명이 참석하여 힘찬 첫발을 내디뎠는데 고조된 열기속에서 초대이사장에 서기용(마산제지주식회사) 사장이 선출되고 사업계획, 수지예산, 심의에 앞서 설립취지서 채택, 정관의결 등 회의 안건 모두를 순조롭게 받아들였다.

이때 출자금 3백만원, 임직원 3명으로 조합살림을 시작했으며, 그후 65년 39명, 67년, 38명, 68년 37명, 69년 39명으로 60년대 조합초창기에는 조합경영이 매우 어려웠으며, 이를 증명하듯 조합원은 창립당시보다 겨우 10명이 늘었을 뿐이다.

우리 나라 제지공업은 1948년 15개 공장에서 연산능력 2만5천톤에

불과했으나 그후 제지공업은 타 산업과 같이 생산시설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인 1950년대 6.25동란으로 국내 시설의 70%가 파괴되었다.

시련속의 성장기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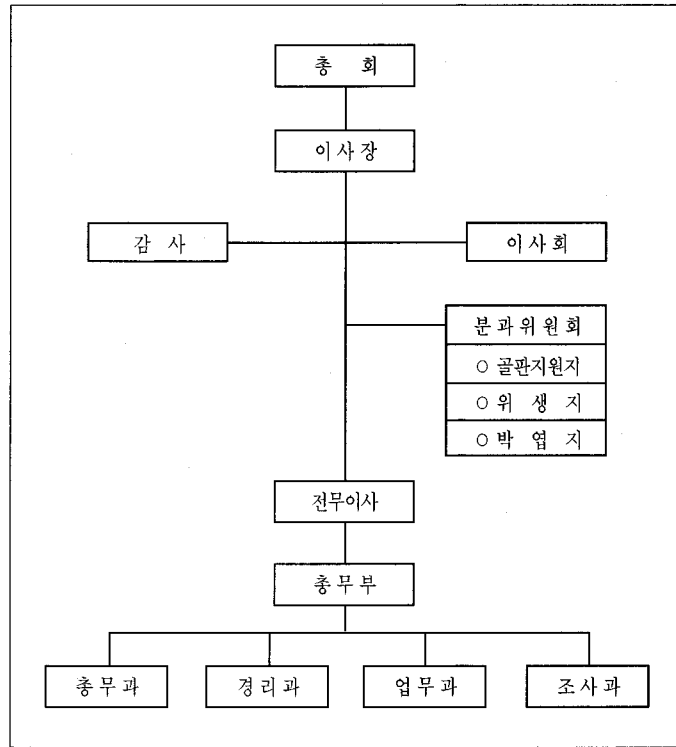
70년대를 시설의 시대라 한다면 80년대는 경영의 시대이며, 국제경쟁으로 변화한 시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제지산업은 펄프의 경우 80%, 휴지는 45%정도가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지산업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낙후된 수준이다.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우리나라 제지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런 목적 수행을 위해 매년 공동구매사업, 단체계약사업, 기획조사사업, 조직강화사업, 지도사업, 교육정보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매년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을 거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조합에 가입하면 첫째, 생산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단체적 계약 공판장 설치 등에 의한 조합원 제품의 공동판매로 판로확대를 기할 수 있으며, 셋째, 정부시책을 빨리 알아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아 시책수혜

(표 1) 조합 기구표



일본 견학을 마치고

가 쉽다.

넷째, 각종 중소기업 특별자금 이용이 가능하며 다섯째, 각종 정보를 기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고 여섯째, 거래알선을 받으며 일곱째,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조합원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에 의한

발전도모 여덟째, 경영자 또는 종업원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에 의한 기업의 장기적인 계획달성 및 경영전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조직활성화

70년대 들어서면서 제지조합은 60년대의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개발의 터전을 닦았으나 70년대 전반기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후반기에 건전경영이 이룩되었다.

조합원수도 이때 1백13명으로 3배가 늘어났고 출자금도 1억24만원이 되어 무려 38배나 성장했다.

70년대의 주요사업은 협동조합의 조직과 기능강화, 기획조사 연구사업의 강화, 공동사업의 확충,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도사업, 수출업체 지원 및 국제노력, 홍보 및 정보제공, 공장 새마을운동 확산 및 공익사업 등 조합원지원 및 조직활성화의 연대였다.

79년도 예산은 9천4백50만원으로 74년에 비하면 조합원 증가, 사업확장에 따라 약 8배나 된다. 따라서 사업활동을 요약해 보면 공동구매 사업 자금지원으로 조합원 사업에 나섰고 공장새마을운동 지원, 해외 원자재 시세안내 및 알선, 기술지원, 행정지원 등을 병행하였으며, 조합 운영은 이사회 중심으로 활성화에 치중하면서 조합원의 공동관심사, 당면 현안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

80년대의 제지조합은 성장 변영기다. 이러한 상황은 20년간의 조합연령과 주변 산업개발의 영향과 국제 제지산업의 품질향상, 고급화, 다양화 등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력에 크게 연관됐기 때문이다.

80년대 들어와 조합은 각종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특기할만한 것은 81년도 '제지'를 격월간으로 발행하여 조합원 및 유관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렸으며, 10년간 제지발행으로



조합원사 경영자 세미나

(표 2) 규모별 생산현황(연간)

연도	구분	5,000	10,000	20,000	30,000	60,000	60,000	계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90	수량	37,896	119,454	307,043	149,818	400,620	1,110,799	2,124,830
	업체수	13	16	20	6	10	13	78
91	수량	32,896	99,289	273,138	143,058	233,768	1,032,866	1,815,015
	업체수	12	13	17	6	6	11	65
92	수량	28,392	92,453	159,272	243,786	285,108	847,610	1,656,603
	업체수	10	13	11	10	7	9	60
93	수량	18,173	83,256	129,201	206,220	284,598	750,107	1,471,555
	업체수	8	10	9	9	6	8	50

(표 3) 조합원사 중 대기업

구분	연도	90		91		92		93	
		자산총액	종업원수	자산총액	종업원수	자산총액	종업원수	자산총액	종업원수
운양팔프		51,112	276	55,837	280	76,086	425	98,234	425
한국수출포장								55,271	346
한주제지								41,052	204

조합내실 및 조합원 업체경영에 기여했다.

특히 85년에는 조합 자가사무실을 마련함으로써 창립이후 25년간 조합원의 숙원을 푸는 한편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현안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정부건의 등이 유난히 많았다.

80년대 하반기부터는 조합원사 자

체 내실이 건전화 되어 조합 공동구매사업 참여업체도 자립적인 사업영위로 활발한 사업수행이 가능했던 것은 바람직한 성과였으나 한편으로 조합은 사업참여 저조로 점진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게 됐다.

이런 현상은 9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어 조합 사업수익은 감소되고 회비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다.

역할 재정립 시기

90년들어 조합의 역할은 재정립돼야 할 시기에서 지나면서 30년의 조합사를 뒤돌아 볼 때 그동안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데 협동과 지원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시대와 조합원의 변화에 걸맞는 업계의 향도로서 업무의 능률화는 물론 조합원이 희망하는 공동관심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측면지원의 조력자로서 업계에 정보 제공 등 기술적인 효율제고에 노력해야 하며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으로써 확실한 일을 시키는 위치에서 손발이 되어 능률과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새로운 얼굴의 조합이 되고 조합원이 되어 첨단시대를 맞이한 업계는 물론 조합의 위상이 재조명되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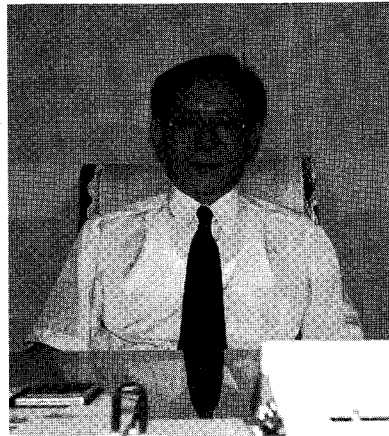
“제지조합은 조합사들의 친목과 대정부 건의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돼 있어 다른 조합과 같이 수익사업이 없어 안정적으로 납품처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사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적은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지조합 정규성 전무이사는 “조합사들이 경영합리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조합의 기능을 살려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원사들의 권익보호, 자생력 증가, 품질보증에 주력, 경쟁체제를 사전에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제지의 경우 환경분야에 기술적 설비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중별로 조합에서 단체표준규격을 제정해 조합원사들에게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사들



정규성 전무

의 협조 미흡으로 조합이 펼치고 있는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조합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주길 바라고 있다.

조합은 또 산학연 합동으로 업체들에 기술지도 연구사업을 펼쳐 실질적으로 조합원사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국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체제정비, 조직강화에 중점을 뒀 최근 몇년간 업체가 휴폐도산하는 등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 전무는 “제지가 대기업형 업종이면서도 중소기업체가 많아 자본력에서 달려 특수지 개발 등 기술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재무구조, 발전성 등을 조사하여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체에 신용지원을 과감히 늘려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했다.

또 수요자들이 어음결제기간을 길게 잡고 있어 제조업체인 제지사들이 경영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어 이의 개선도 촉구했다.

정 전무는 앞으로 관련업종을 특별회원으로 가입토록 적극 권장, 조합

의 조직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인데 최근 벽지업체들과 협의하여 제지업체들과 공동이익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 관련 국정교과서와 전화번호부에 대한 인수를 위해 조합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또는 인쇄연합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지조합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 조합의 위상강화와 조직강화에 나서고 있다. 연륜만큼이나 튼튼한 조합의 운영을 위해.

오선진 기자